

[8] 이 하 응

신창국민학교 교정에는 흥선 대원군이 세운 척화비가 있다.

흥선 대원군은 조선고종 초기의 집권자이며 성명은 이하응, 호는 석과 고종의 아버지다. 철종(1893)이 후사없이 죽자 조선대와의 일계에 의해 그의 둘째아들 명복을 왕위에 앉히고 자기는 섭정을 보게 되었다. 왕의 부친으로 정권을 잡은 대원군은 오래 쌓여온 폐단을 일소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과단성있는 개혁을 단행, 우선 안동김씨 일족을 세도에서 몰아내고 악덕서원을 철폐하도록 하였다.

경제적 시책으로 일반 평민에게만 부과하던 군포를 호포라 하여 양반에게도 과하였으며 또 종래의 한국제도를 사창제도로 고치고 관리의 부정을 막았다.

이밖에도 법전의 완비, 정권과 군권의 분리, 의복제도의 개량등 불만한 정치를 많이 하였다.

그러나 반면 경복궁 재건으로 인한 무리한 과세등으로 경제계를 혼란케하고 천주교를 탄압하여 무고한 백성과 외국인 선교사를 죽임으로서 백성의 원성을 사고 대외적인 감정을 악화시켰다.

또 세계정세에 어두워 쇄국정책을 쓰므로써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일으켰는데 쇄국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척화비가 세워졌는데 신창국민학교에 그중 하나가 세워졌다.

이 척화비가 세워진 정확한 연대는 알수 없으나 '병인작신미립'이라는 글로 보아 병인, 신미양요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척화비의 크기는 세로 105.5cm, 가로 41.5cm로 직사각형이다. 비의 양측면과 뒷면은 새겨져 있지 않고 전면에만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로글씨로 써있다.

洋夷侵犯非戰則和主賣國

成我萬年子孫

丙寅作幸未立

이 쇄국정책으로 인해 서양문화수입에 지장을 가져온것 등은 씻지 못할 실정이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한 국민의 원성과 유학자의 불만이 높아졌을 때 민비는 고종을 조종하여 최익현의 대원군 탄핵의 상소가 올라온 것을 계기로 그를 정권에서 물러나게 하니 꼭 집권 10년만의 일이었다.

그 후 대원군은 민비를 비롯한 민씨일파와 암투를 계속하여 정치표면에 나선적도 있지만 끝내 정권을 다시잡지 못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대원군 뿐만 아니라 나라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했는데 이 척화비를 봄으로써 외국의 문물을 무조건 배타만 할것이 아니라 옳은 것만 받아들이고 옳지 않은것은 버리는 주체성을 가져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줄 알아야 한다. 더우기 이 척화비가 공교롭게도 교정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배우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돌아보고 현실을 찾아보게 하는 무인의 지시를 하는것만 같아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가다듬게 한다.